

## 서평

홍나래 | 마음으로 즐기는 아름다움과 그 이야기

- 유강하 『아름다움, 그 불멸의 이야기』, 서해문집, 2015.

오김숙이 | 민족지(ethnography)로서 게이 루빈의 『일탈』 읽기

- 게이 루빈, 임옥희·조혜영·신혜수·허윤 역, 『일탈 *Deviations: A Gayle Rubin Reader*』, 현실문화, 2015.



# 마음으로 즐기는 아름다움과 그 이야기

: 유강하 『아름다움, 그 불멸의 이야기』, 서해문집, 2015.

홍나래\*

『아름다움, 그 불멸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 책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만만치 않은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 옛날이야기 속 아름다운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이 시대에 눈길이 가는 주제이며, 서구의 미·미인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어떤 미의 여신이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지 혹은 아름다움을 지속시키는 비법을 전해 줄지 궁금해지게 한다.

또한 이 책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이 계획한 ‘아시아의 미’ 시리즈 중 네 번째로, 대중을 위한 인문 교양서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 성인의 1년 평균 독서량이 10권도 채 되지 않고 베스트셀러에서 고전문학 관련 서적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고전문학이 오늘날 어떻게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자가 고민하고 노력한 책이기도 하다.

설화를 선택한 다른 이유를 더 들여보자면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일단 보기에 좋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름다움이 그저 시각적인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파토스(예술에서의 주관적, 감정적 요소)와 결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싶었다. (9~10쪽)

---

\* 건국대 박사후연구원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신화와 이야기, 그림 속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수많은 여신과 여성을 만났다. 그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는 지극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들은 단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는 불멸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었다. (16쪽)

저자는 ‘옛사람이 만들고 즐겼던 설화는 낡고 흘러간 옛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박하지만 진실한 통로가 되어 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승되는 설화 속에서 여전히 아름답다고 기억되는 여인·여신들,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거나 반대로 흉하게 변한 여인들의 사연에 주목하여, 이들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씩 해답을 모으고자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지적처럼 미인의 시각도 헤아리고 있으나, 그보다 미인을 바라보고 흔들린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를 유심히 살핀다.

선녀와 나무꾼, 우렁각시 등 일반 민담에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등장해 미모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자가 관심을 둔 주 대상은 역사 속에 실재했다는 인물이나 초자연적 위력을 지녔다고 상상된 인물들, 즉 인물 전설과 신화이다. 이는 사실과 믿음 속에서 서술되는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미의 실재이자 비밀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아름다움이나 미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름다움이라 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누구의 아름다움을 왜 기억하는가에 대해 보다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답을 찾고자 했고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 글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선별하기에 앞서 고대 문자로부터 ‘미’의 의미를 찾았다. 미(美)는 양(羊)과 대(大)의 조합으로 양이 크면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한다. 혹은 새의 깃털로 장식한 사람을 형상화 한 글자라고도 하는데, 양이나 새 모두 혼할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회에서 제물이나 초

자연적 매개물로 여겨진 동물이었다. 또한 미(美)는 맛이 좋다(甘)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선(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었으니, 아름다움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시각적인 면을 자극하지만, 인간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종합적인 것으로 특히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고대문자와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미의 근원적 의미를 정리하고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라는 왕필의 주석을 곱씹는 것은 눈으로만 아름다움을 재단하는 현대인의 시선을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양한 심미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미·미인의 이야기를 찾게 된다.

저자가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선별한 미인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서 불멸의 이야기로 남은 이들이며, 앞서 말한 다양한 심미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야기로는 수로부인, 처용의 아내, 도화랑 같은 신라의 미인과 황진이, 오정창의 딸 같은 조선의 여인이 있으며, 신화 인물로는 설문대 할망, 삼신할미, 바리공주, 마고를 들고 있다. 중국의 이야기로는 달기, 포사, 복비, 견씨부인, 한 무제의 이부인, 서시, 왕소군, 마조 여신, 마고 여선(女仙), 서왕모, 향아, 그리고 남성으로 반약, 동현 등이다. 20명 이상의 인물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으며 간단히 언급된 인물들까지 합하면 서른 꼭지를 훌쩍 넘긴다.

저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미를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첫눈에 반한다는 것’, 두 번째가 ‘아름다움의 빛과 그림자’, 세 번째가 ‘느린 이끌림’, 네 번째가 ‘변화 그리고 변신의 비밀’이다. 첫 번째에서는 사람이면서 신들까지 홀리거나 신이면서 사람을 빠져들게 한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는 팜파탈이라 불리는 여인들의 지탄받고 고단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는 할미나 중년여성으로 기억되는 자애로운 여신들의 이야기를, 네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괴물에서 여신으로 혹은 여신에서 추물로 바뀌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분류는 미인의 유형이라기보다 미인을 보고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

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사람들은 미인을 보면 자신을 잊을 정도로 빠져들거나 두려움을 느껴 화를 내고, 인간을 돌보고 헌신하는 모습에는 감동하여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의리를 저버리거나 반동적인 모습에는 추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각 항목들의 분류 제목들 아래에는 중제목과 소제목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어서 이를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본 의미—아름다움이 시각 외에 오감으로 느껴지며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때로 시각을 압도하기도 한다—를 확인하게 된다. 편안한 서술 속에서도 뚜렷하게 주제가 부각되는 것은 자료를 그만큼 치밀하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가 미의 여신으로 아프로디테를 떠올리고 디즈니의 공주들에 익숙한 데 반해 우리 전통에서 누구를 대표 미인으로 말할지 주저하게 된 것은 ‘미의 기준이 서구화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움과 관련한 극적인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그나마 있는 이야기 또한 산발적이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p.13)으로 보았다. 그래서 고대 문자로부터 미의 근원적 의미를 찾고 짧은 이야기들 속에 압축된 여운을 풀어내고자 했다. 먼저 서구와 다른 아름다움의 특성으로 무엇보다 늙음에 대한 해석을 꼽는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이야기와는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은 같지만,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내용까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젊음을 대하는 태도다. 서양의 수많은 그림과 조각에 넘실대는 희고 부드러운 살결, 풍성한 머리털은 오로지 젊음만이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향연이다. 젊음과 아름다움의 거리는 결코 멀지 않다. 때로 서양에서 나이 든 여성은 탐욕스럽게 젊음을 갈구하거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는 마녀의 형상으로 그려지곤 한다...(중략)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아

름답다는 찬사를 받는 여인은 문자 그대로 어여쁜 외모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 그녀들은 젊은 외모와 무관하게 사랑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발그레한 복숭앗빛 뺨을 가진 소녀, 결코 늙지 않는 여신의 초상에 흰 머리카락을 그려 넣기도 하고, 젊은 여신을 마치 중년 여성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나이 듦의 증거는 그녀들에 대한 비하나 혐오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녀들은 굵은 등, 흰 머리카락을 갖고 있지만, 형형하면서 또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그녀들을 기리는 사당 앞에서 떠오르는 향은 그녀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증거다. (13~14쪽)

송나라 푸젠(福建)지역 임씨의 경우 ‘혼인하지 않고 살다가 스물여덟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어릴 적 꿈속에서 풍랑에 휩쓸린 오빠들을 구해낸 것을 기려 ‘두둑한 턱살을 가진’ 후덕한 중년의 마조 여신’으로 되살렸다. 마조같이 따듯하고 인자한 여신의 풍채가 우리나라 신화에 이르면 설문대 할망이나 삼신할미처럼 아예 할머니로 나타난다. 할머니 신들의 존재에는 신산한 삶의 무게를 견뎌낸 노년의 삶을 긍정하며 이를 아름답게 바라본 우리들의 철학이 담겨있다. 중국과 조선의 설화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 신화 속 다양한 할미들을 통해 동양의 깊은 아름다움을 보다 강렬하게 주장하게 된 것은 우리 신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는 산발적이거나 짧게 요약된 이야기들의 경우 단편적인 조각들을 잇고 서사의 맥락을 더하여 하나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 기록을 전하는 이들이 대체로 남성이었기 때문에 미인은 수동적으로 관찰되고 평가받는 존재였다. 저자는 좀 더 미인의 목소리와 감정을 살려내어 신화나 전설 속 인물들을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려낸다. 남편 예(羿)를 배신하고 두꺼비가 된 향아에 대해서도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다 해도 예의 삶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딜 가나 사람들의 환영받는 영웅인 예는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예가 유부남이

었다는 사실이다. 예에게는 향이라는 여신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 때문에 그녀도 줄지에 지상에 남겨지게 됐다. 불멸의 여신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유한한 삶을 살게 된 상실과 분노, 충격과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p.240)라며 남편이 구한 영약을 훔쳐 먹고서라도 승천하고 싶었던 그녀의 심정을 들어준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수로부인의 예를 들어보자.

임지로 떠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가 되어 바닷가에 펼쳐놓은 점심은 낭만적이었을 것이다. 그 점심을 더 낭만적이게 했던 것은 병풍처럼 둘러쳐진 해안 절벽과 그 위에 위태롭게 피어 있는 철쭉이었다. 아마도 수로부인은 자신의 미모를 알았을 것이다. 순정공의 아내라는 지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녀는 당당하게 그 꽃을 요구했다. “누가 내게 저 꽃을 꺾어 바치겠소?”라는 질문에는 일종의 오만함이 서려있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요구를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당당하고 기품 있게 요청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한다면 보상도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꽃을 바치는 낭만적인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황홀했지만, 까마득한 해안 절벽을 바라본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만 하다가, 결국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 섞인 변명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76쪽)

수로부인은 『삼국유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여성으로 일연에 의해 비교 불가능한 아름다움(姿容絶代)으로 묘사된다. 『삼국유사』의 수많은 미인들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그녀를 연구자들은 단순한 미인이라기보다 신성성을 지닌 존재로, 이계와 소통하는 능력 있는 인물로도 해석한다. 하지만 저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 상징으로 미인 관련 사건을 『삼국유사』에 배치한 일연의 의도에 머물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이를 해석하여 인물을 생기발랄한 미녀로 그려냈다. 처용 아내의 간통 사건 역시 ‘이것이 단지 처용의 인덕(仁德) 때문이었을까? 만약 처용의 처가 아니었다



면 역병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둔갑술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꽃처럼 아리따웠던 처용 아내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89쪽)라며 여인의 미를 사건의 중심으로 바라 보았다. 『삼국유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사람들이 미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격렬한 감정을 유사하게 다루었으니, 저자 역시 대중의 시각에 맞추어 시원스럽게 설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 책은 그림과 인물상, 시와 영화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 이야기의 힘을 느끼게 한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다가 책장을 덮고 고전문헌들을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화피(畫皮)>의 영화포스터를 찾아보게 되고, 강원도 삼척시에 세워졌다는 거대한 수로부인상의 모습과 ‘항아공정’이라는 중국의 우주계획 기사도 찾게 된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풍부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저자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독자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양서인 만큼 여지를 남긴 문제들이나 주제를 강조하다 비튼 시각들이 오히려 질문을 풍성하게 던져주며 저자와의 대화를 갈구하게 만든다.

한국 설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미에 대하여 중국과 변별되는 우리의 시각이 눈에 들어온다. 저자는 ‘우리나라 설화와 중국의 설화는 엄연히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크기에 세세한 차이점은 나열하지 않았다... 서왕모와 마고 설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을 따라서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288쪽)라고 하였다. 서사의 전승과 변이의 큰 측면이 중국과 유사하더라도 중국 설화에 대한 찬찬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한국과 중국에서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같은 서왕모에 대해 상상하더라도 ‘중국과 달리 이 땅의 지식인은 반도보다 요지의 연회에 집중했다...그녀가 베푸는 천상의 연회 요지연(瑤池宴)에 대한 끊이지 않는 갈망은 요지연도(瑤池宴圖)의 일대 유행을 낳았다’(222

쪽)는 것처럼, 유사하나 같지 않은 데에 보다 문화사회적인 의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미인을 기억하는 데에 인색한 듯하다. 세간에서는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웠던 고구려의 관나부인, 아름다운 여인으로 화랑도의 전신을 이끌었던 원화 남모, 『고려사』에 기록된 후궁들의 아름다움, 현종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경빈 김씨의 외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달기와 포사가 폐왕의 곁에서 악녀로 지탄받으면서도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으로 남은 것과 달리 우리에게 장녹수나 김개시 같은 여인들은 아름다움보다 권력적인 문제로 기억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여인들의 행동거지와 힘에 남들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부여했다면 그 이유를 다양하게 살피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 책은 남성 전승자들의 시각에서 미인으로 혹 마녀로 기억되는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전승자들의 젠더적 특성과 아름다움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조선이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채택한 이래 무속은 기복적인 의례로 배척되었다. 우리 신화 속 할머니 여신들은 무속의례를 통해 전승되었는데, 삶에서 소중한 여신들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숭앙된 데에는 이야기를 굳건히 받쳐 준 여성 중심의 전승집단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역시 고착화되거나 시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pp.52-53)고 하면서 할머니까지 반하게 했다는 반약(潘岳)과 한나라 애제의 사랑을 받아 ‘단수지벽(斷袖之癖)’이란 말을 남긴 동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래도 아름다운 남성의 사례보다 여성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담론화하고 기록과 전승에서 남성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문화전승층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오늘날의 이야기관에서 아름다움과 미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눈여겨볼 일이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영속하는 미의 조건을 결핍으로 남겨진 욕망으로 보면서 소문과 이야기의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질 수 없는 왕소군에 대한 황제의 결핍이 기억 속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켰고, 화공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돌게 했으며 그런 소문이 왕소군의 아름다움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왕소군의 그림 두 점과 삼척시에 세워진 거대한 수로부인상의 사진을 싣고 어떤 시각적 이미지보다 글과 말이야말로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쳐 치게 한다면서 이야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다. 옛이야기에 매료된 이들이 있기에 이야기가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변화하게 된다.